



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자료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보도시점 2023. 10. 13.(화) 11:20
< 10.12.(목) 조간 > 배포 2023. 10. 12.(목)

제4차 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열려

- 26건의 한-사우디 정상경제외교(290억 불, '22.11) 성과 이행 점검
- 양국 11개 부처(한(韓) 5, 사(沙) 6)가 총 56건의 협력과제 진전 방안 논의
- 자동차, 바이오, 모바일결제, 게임, 엔터테인먼트 등 중동 진출 활로 모색

한국과 사우디 주요 11개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그렸다. 「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」(이하 위원회) 수석대표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(Khalid Al-Falih) 사우디 투자부장관은 10. 13(금) 11:20 ~ 12:20 간 서울(포시즌스 호텔)에서 양국 부처 차관보 및 국장급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.

양측은 우선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체결된 26건의 한-사우디 정상경제외교 성과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고, 특히, 향후 경제협력 성과를 동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관리해 나갈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. 또한, 「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」의 기존 39개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총 17건의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총 56개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.

출범 7년 차를 맞이하는 「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」는 2017년 ‘한-사우디 비전 2030 협력각서(MoC)’에 따라 설립된 양국 정부 간 협력채널로써 ▲제조·에너지, ▲스마트인프라, ▲역량강화, ▲보건의료, ▲중소기업·투자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정부, 기관, 기업 간 유망 협력사업의 이행을 관리하여 왔다. 2022년 1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제3차 위원회가 개최된 이래 1년 9개월 만에 네 번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.

정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발굴된 자동차, 바이오, 모바일결제, 게임,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 신규협력 과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, 이에 더해 기술 및 제품 인증협력도 추진함으로써 사우디를 거점으로 중동지역 전반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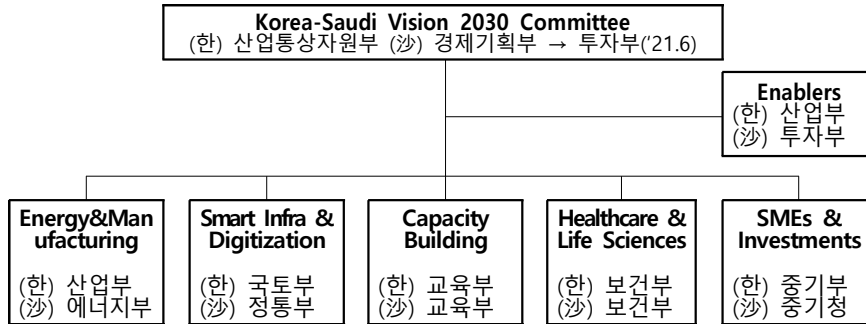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	책임자	과 장 권현철 (044-203-5720)
		담당자	사무관 송영택 (044-203-5727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 우종하 (044-201-3526)
		담당자	사무관 김기욱 (044-201-3528)
담당 부서	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혜진 (044-203-6752)
		담당자	사무관 장영희 (044-203-6758)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화연 (044-202-2353)
		담당자	주무관 오 영 (044-202-2364)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 박수민 (044-204-7550)
		담당자	사무관 김진중 (044-204-7551)



□ 위원회 개요

- 한국은 산업 다각화를 위한 ‘사우디 비전 2030’ 중점 협력국으로서 장관급 ‘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’ 협력 채널 구축

* 중점협력국은 8개국(韓, 美, 日, 中, 印, 英, 佛, 獨)이나, 위원회는 2개국(韓, 日)만 운영



□ 추진 경과

* '16.9월 G20 정상회의 계기, 박근혜 당시 대통령 - 沙왕세자 간 비전 2030 협력 합의

- ❶ '17.10.26.(서울) 「제1차 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」 개최
→ 제조·에너지, 보건·의료 등 5대 분야 40여 개 협력사업 선정
- ❷ '19.4.3.(서울) 「제2차 비전 2030 위원회」 개최
- ❸ '19.6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, **정상회담** 개최
* 조선, 자동차, 석유화학, 신산업 분야 등 총 10건의 83억불 규모의 MOU 및 계약 체결
- ❹ '22.1.18.(리야드) 정상 訪沙 계기 「제3차 비전 2030 위원회」 개최
- ❺ '22.11.17.(서울)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 방한, **정상회담** 개최
* 「한-沙 투자포럼(11.17)」 계기 26건의 계약·MOU(290억불) 체결